
Anteromedial ankle의 osteophyte를 보기위한 검사방법

서울아산병원

이상우, 김영재, 길미경, 오제선, 강형욱, 이용문

목 적 : 족관절이 운동하는 것을 제한하고 동통을 유발하는 osteophyte를 보기 위한 정확한 검사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2003년 4월 1일에서 8월 20일까지 본원에서 anteromedial ankle에 동통을 주소로 AMI (anteromedial impingment view)를 시행한 실험군 32명을 대상으로 osteophyte의 유무를 알아보았다.

모의환자를 대상으로 보다 정확한 검사방법을 알기 위해 족관절의 외전(external) 각도를 15, 30, 45도하고 X선 beam을 두정하악(cranialcaudal) 방향으로 35, 40, 45, 50, 55로 각각 변화하여 보았다.

족관절의 AMI(anteromedial impingment view)의 검사방법은 족관절을 족저굴(flantar-flexion)한 상태에서 외전(external) 30도로 회전시킨 후 X선 beam을 두정하악(cranialcaudal) 방향으로 외측과(lateral malleolus)를 향해서 45도로 입사한다. 이때 cassette는 입사빔과 수직을 이루어야 한다.

결 과 : 족관절의 AMI(anteromedial impingment view)를 시행한 32명의 실험군중 4명의 환자에서 osteophyte가 발견되었고 그 크기는 평균 5.5 mm정도로 나타났고 이 중 3명은 osteoarthritis를 동반하고 있었다.

모의환자를 통해서 족관절의 외전(external) 30도와 X선 beam을 두정하악(cranialcaudal) 방향으로 40도로 입사하는 것이 더 정확한 영상을 얻을 수 있었다.

결론 및 고찰 : 족관절의 AMI(anteromedial impingment view)는 anteromedial ankle의 osteophyte를 발견하고 이 후 관절경(arthroscopy)을 통한 제거술을 시행하는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유용한 검사방법이라 사료된다.